애플 '비전프로' 접고, 3년만에 '아이폰SE4' 미니로 반격

아이폰 16 시리즈 등 판매부진 대응
저가형 아이폰 SE4로 전략적 전환
디스플레이·노치 디자인 등 탑재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에서 아이폰SE 3세대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실적 부진에 직면한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를 접고 3년간 출시하지 않았던 아이폰 SE 신제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애플이 최근 발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와 신상폰 아이폰16 시리즈는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애플은 비전프로의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고 중저가형 스마트폰 모델 '아이폰SE' 4세대 기기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SE4 제품 사양이 구체화됐으며 내년 3~4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3세대가 나온 지 3년 만이다.

SE4는 애플의 보급형 제품으로 기존 아이폰 시리즈 대비 사양과 가격을 내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로 인기가 높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SE4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이폰14와 유사하다. 기존 홈 버튼이 사라지고 디스플레이가 기기 전체에 꽉 들어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이폰14와 동일한 1170 x 2532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에 평평한 모서리, 페이스ID 지원 노치 디자인을 탑재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신 기종인 아이폰15 기본모델(799달러)보다 300달러 이상 낮은 429달러(약 58만원)로 전망된다.

주목할 점은 보급형 폰인 아이폰SE 4에도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폰SE4에 AI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기 아이폰SE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A18 칩과 8GB 램 도입이 기대되는데 애플이 저가형 아이폰SE 모델에 이를 지원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인텔리전스 지원을 위해 아이폰16에 탑재된 A18 칩을 갖추고 아이폰15, 아이폰15 플러스와 동일한 4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이 3년만에 아이폰SE 신형을 공개한 데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지난달 공개한 아이폰16리시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의 할인 판매를 일찍 시작한 점도 아이폰 신제품 판매치가 기대를 밑돌았다는 분석이다.

아이폰16의 출시 첫 주 판매량은 370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작 대비 12.7% 줄어든 규모다. 올해 4분기 아이폰16 시리즈 생산도 전작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궈밍치 대만 TF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4분기 아이폰16 시리즈가 8800만~8900만대 출하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야심 차게 내놓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도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판매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전 프로는 애플이 아이폰의 뒤를 이어 차세대 기기로 지난 2월 신제품으로 내놓은 헤드셋이다. 그러나 초기 높은 관심과 달리 35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저가의 경쟁 제품들로 인해 출시 첫 해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지난 초여름부터 비전 프로의 생산을 크게 줄였으며, 올해 말까지 현재 버전의 헤드셋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또 비전프로 조립사인 중국 럭스셰어에 오는 11월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이 이번 실적에서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이타우 BBA는 "다음주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어닝 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게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애플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촉매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다"며 애플이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애플은 흥행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아이폰 SE4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디자인을 개편한 아이폰SE는 애플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 특히 중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이폰SE가 애플폰의 판매대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매출 총이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중저가폰인 데다 아이폰SE가 애플폰 총 판매량의 4~5%밖에 차지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에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I비서 전쟁… 아이언맨 '자비스'가 현실로

구글, '자비스' 혁신적 AI 비서 개발
웹 브라우저 내 검색·쇼핑 등 작업 수행
네카오,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가 AI 비서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비서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 속 AI 비서(에이전트) '자비스'를 연상케 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실제로 현실화하면서 구글, 앤트로픽,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구글이 '프로젝트명 자비스(Jarvis)'라는 코드명으로 AI 비서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AI 비서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해 웹 브라우저 내에서 검색, 쇼핑, 항공편 예약 등의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한다.

구글의 자비스는 앤트로픽이 공개한 AI 비서 '컴퓨터 유즈'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컴퓨터 유즈는 컴퓨터에 설치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으나 구글 자비스는 웹 브라우저, 특히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자비스는 소수의 테스터들에게 공개돼 성능 검증과 피드백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테스터들은 자비스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 몇 초간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연말까지 자비스의 성능을 개선해 대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구글은 현재 AI 시장에서 오픈AI에 크게 밀리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5월 'GPT-4o'에 이어 9월 'GPT-o1'을 새로 이 출시해 챗GPT 사용자 수를 크게 늘렸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된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AI 비서 개발에 나섰다. 하이퍼클로바X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정교하게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SK이터닉스, '연료전지' 금융약정 체결

충주·대소원 발전소 코파크 자금조달

SK이터닉스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SK이터닉스(SK eternix)는 고효율 SOFC(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발전소 충주·대소원에코파크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K이터닉스는 공동투자사인 참빛그룹과 자금조달 총괄을 맡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지난 23일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와 461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국내 연료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상 최대 규모로, 총 투자비 5420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약 1만 평 부지에 설비용량 총 80MW(메가와트) 규모의 충주에코파크(40MW)와 대소원에코파크(40MW)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SK이터닉스, 참빛그룹 및 재무적 투자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투자하여 개발 및 운영한다.

SK이터닉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공급과 설계, 인허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았으며,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담당한다. 또한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가 O&M(유지 보수 관리)을,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공급을 맡는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3분기 영업익 272억 성과

고수익 제품 매출 지속 실현 주효

대한전선이 3분기 실적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전선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분기 매출 8044억원, 영업이익 272억원을 잠정 집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을 6300억원에서 28%, 영업이익은 174억원에서 56% 증가한 결과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은 2010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해 연결 분기 실적을 측정한 이래로 역대 최대이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 4573억원, 영업이익 9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883억원, 591억원에서 각각 18%, 58% 확대됐다.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인 798억원을 약 17% 이상 초과한 성과다. 매출도 2010년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높다.

실적 상승의 주요 요인은 높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고수익 제품의 매출을 지속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선은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수주를 이어가며,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조 55억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KT, 5G 음성통화 기술 'VoNR' 전국 서비스 시작

5G 단독모드 보유한 통신사만 가능

KT는 5G 통화 기술인 'VoNR(Voice over New Radio)'을 전국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28일 밝혔다. VoNR은 5G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로,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를 보유한 통신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KT는 2021년 5G SA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기존에는 5G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음성 데이터는 LTE망에서 VoLTE 기술로 전달됐지만 앞으로 KT 이용자는 LTE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5G로 안정적인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VoNR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통신장비 제조사 및 단말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VoNR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KT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기술적 측면을 보완했다.

회사는 VoNR 서비스를 삼성 갤럭시 S23, S23+, S23 울트라 3종에 9월 배포된 갤럭시 One(원) UI 단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추후 갤럭시 S24(3종) 단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VoNR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KT는 기존의 5G 인프라가 5G 어드밴스드와 6G로의 진화되기 위해서는 5G SA가 필수인 점을 고려할 때 5G SA에서 이어진 VoNR 상용화가 국내 통신 업계의 혁신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